

초산부의 간호요구에 관한 연구

여 정 희*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산부가 느끼는 분만통증은 매우 다양하며 주관적이다. 분만통증은 개인의 과거경험, 정서적 안정, 출산력, 태아 크기, 태아위치, 분만중의 정서적 지지(Field, 1974), 일반적 배경(Norr, Block, Charles, Meyering와 Meyers, 1977), 출산에 대한 태도(Chertok, 1969; Rosengren, 1962), 월경곤란증(Melzack, Taenzer, Feldman과 Kinch, 1981), 통증에 대처하는 자신감(Crowe와 von Baeyer, 1989; Lowe, 1987), 청년기때의 분만통증에 대한 불편감의 예상(Nettelblatt, Fagerstrom와 Uddenberg, 1976), 통증내인성(Davenport-Slack과 Boylan, 1974; Morgan, Bulpitt, Clifton과 Lewis, 1984), 신체적 요인(Melzack, Kinch, Dobkin, Lebrun과 Taenzer, 1984) 등 많은 요인에 의해 영향 받으며 개인마다 개별적이고 독특하며 다양하여 분만을 겪는 여성에 의해서만 형용할 수 있는 경험이라 할 수 있다.

김현경(1994)의 질분만의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에서 견디기 힘들, 예기한 고통의 실감, 다른 방법(수술) 추구, 재 경험하고 싶지 않음, 참고 견딤, 여자가 겪는

고통으로 받아들임 등 다양한 표현을 보고하였다. 이렇듯 분만통증은 동일한 생리적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지만 개인이 가진 환경에 따라 통증의 지각이 다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요구사항도 산부마다 다양하며 개별적임을 시사한다.

지금까지 산부관리를 위한 연구에서 보면 분만통증에 초점을 두고 이를 완화할 수 있는 중재를 연구자가 일반적으로 제공한 것으로 산부들에게 충분한 만족감을 주지 못하였다. 이는 산부들이 느끼는 통증의 정도와 이 때 필요로 하는 다양한 산부들의 간호요구를 무시하였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김명자(1984)는 산부의 요구를 신체·생리적인 간호요구, 심리적 대인관계의 간호요구, 예방적인 간호요구로 나누어 비교하였고, 한경려(1995)는 상호 의존적 간호요구, 자아 개념적 간호요구, 신체 생리적 간호요구, 역할 기능적 간호요구로 구분하였으며, 이 중 산부가 가장 원하는 간호요구는 상호 의존적 간호요구이었으나 간호사는 산부가 가장 원하는 간호요구를 신체 생리적 간호요구로 생각하여 산부와 간호사간에 의견 차이가 있음을 보여 주었다. 또한 산부가족에게 분만에 참여를 원하는냐는 질문에 95%에서 찬성을 하였지만(장순복, 최연순, 김혜숙, 조영숙과 이해우, 1992) 산부에게 분만중 함께 있고 싶은 보호자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37.8%에서 원하지 않는다고 대답하여 산부와 가족간에 차이가 있음을

*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시간강사

알 수 있었다(김혜숙, 최연순, 장순복, 전은미와 정재원, 1993).

따라서 분만통증을 겪는 산부들의 간호요구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의료인 나름대로 구조화된 질문에 의해서 하기보다는 산부의 다양한 관점을 이해하고 대상자의 관점에서 간호요구를 질적으로 파악함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자는 산부들의 통증이 잘 관리됨으로써 산부자신을 대견하게 생각하고, 보람을 느끼며, 성취감과 정체감을 갖는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므로 산부들의 분만통증시 지각하는 간호요구를 파악하여 분만통증의 관리에 도움을 주고자 시도하였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자연질식분만한 초산모의 분만통증시 간호요구의 구조를 파악하여 대상자의 관점에서 개별적인 간호로 분만통증 관리에 도움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주된 질문은 '초산모의 분만통증시 간호요구는 무엇인가? 그 의미는 무엇인가?'이다.

II. 문헌 고찰

인간의 요구는 복잡하며 다양하고 개별적이다. 여러 학자들에 의해 인간의 기본요구는 신체적 요구, 정서적 요구, 환경적 요구, 사회·경제적 요구, 교육적 요구의 다섯 영역으로 나누어진다. Tarnower(1965)는 이렇게 다양한 인간의 요구는 간호업무의 실제 상황에 따른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데 있어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Lesser와 Keane(1956)은 분만동안 간호제공자가 처리해 주기를 원하는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면담한 결과 또 다른 인간되어감이 지속되기를, 통증이 완화되기를, 자신과 태아에게 안전한 결과를 가져오도록, 수용적인 태도로 대해 주기를, 신체적인 간호를 받기 기대하였고, 신체적 간호는 대체로 처리되었지만 정서적, 정보적 요구는 단지 부분적으로 처리됨을 보고하였다.

분만동안 산부와 조산사와의 만남에 대한 산부의 경험을 현상학적 연구로 하였을 때 가장 필수적인 구조는 '임석'이며, 3가지 주제는 '개인으로서 대하는 것' '믿을 수 있는 관계를 갖는 것' '분만동안 지지와 안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 산부들은 조산사가 임석하여 산부 자신이 의미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하고 존중해 주며 인정해 주

기 바라며, 의사소통이 잘 되기 바라고, 이용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을 많이 가지기를 요구하였다(Berg, Lundgren, Hermansson과 Wahlberg, 1996).

Brown과 Lumley(1994)는 분만후 8-9개월이 된 여성 790명에게 설문지를 통해 분만동안 간호에 대한 불만족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파악한 결과 의사결정의 참여부족, 불충분한 정보, 빈번한 산과적 중재, 간호제공자가 도움이 안된다고 지각한 경우 등이었으며, 불만족과 관련이 없는 요인은 산부의 나이, 결혼 상태, 총가족 수입, 태생지, 의료보험상태 등으로 나타났고, 초산이든 경산이든 상관없이 불만족에 영향을 주는 것은 제왕절개술 경험의 유무, 기대보다 통증이 심할 때, 산과적 중재의 접수가 높을 때, 분만후 신생아를 즉각적으로 접촉할 수 없을 때 등의 요인으로 기술하였다. 즉 산부들은 분만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기 바라고 분만통증을 자기 스스로 관리하기를 원하며, 인위적인 분만통증의 조절을 원치 않았다.

Bryant와 Overland(1964)는 모든 산부들은 간호처치를 행할 때 먼저 그들에게 설명해 주기를 원하며 동시에 분만의 진전과 태아상태에 대해 말해 주기를 바라고, 노출을 피하기 위해 진찰시 칸막이 사용을 요구한다고 기술하였다.

Klein, Gist, Nicholson과 Standley(1983)은 분만후 1주일에 산모와 면담하였을 때 간호지지로서 가장 도움이 되는 행위는 대화에 의한 간호지지라고 보고하였으며, 여러 연구자(Cartwright, 1979; Kirke, 1980; MacIntosh, 1988; MacIntyre, 1982)도 분만동안 산부들이 가장 불평하는 요인 중에 하나로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44명의 산모와의 면담으로 긍정적인 분만진행과 관련된 간호사의 특성이나 행동을 확인해 본 결과 개별적인 간호제공, 격려·기분전환·칭찬, 자신감과 안정감의 전달, 친절하면서도 풍부한 지식, 산부를 옹호하는 사람, 의견을 잘 듣고 존중해 주는 사람을 최고라고 보고하였다(Field, 1987).

따라서 국외문헌이 제시한 산부들의 간호요구를 종합해 보면 산부들은 분만 진행에 대한 정보를 얻기 바라고, 의료인과 의사소통이 잘 되기를 원하며, 인위적인 조절을 원치 않으며, 스스로 분만통증을 조절하기 바라고, 인격적으로 대해 주기 원하고, 누군가와 함께 있으면서 지지 받기를 바라며, 개별적인 간호를 받기 기대한다.

국내문헌에서 보면 안혜숙(1976)은 산부의 간호요구

로서 정상분만을 희망하는 요구, 분만중에 간호사나 가족의 임석의 요구, 간호사로서의 적절한 역할수행의 요구, 간호사의 친절과 간호사와의 원활한 관계유지의 요구, 분만중의 영양섭취의 요구 등 다양한 요구를 보고하였으며, 전체적으로 볼 때 산부의 요구는 육체적 요구에 못지 않게 심리적 요구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산모의 분만진행에는 개인차가 있어 개별적인 간호를 받기 원한다고 보고하였다.

산부의 요구를 신체·생리적인 간호요구, 심리적 대인관계의 간호요구, 예방적인 간호요구로 나누어 비교하였을 때 심리적 대인관계가 5점에 4.27로 가장 높았으며, 신체·생리적인 간호요구의 9항목중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낸 요구는 '원하면 진통완화제를 투약해 준다'로 약물중재보다는 자가 조절을 원함을 알 수 있었다(김명자, 1984).

결론적으로 국외문헌에서는 산부들이 원하는 간호요구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적 연구가 대부분이었지만 국내문헌에서는 분만동안 산부들이 원하는 간호요구에 대한 연구가 부족할 뿐 아니라 모두 양적 연구로 대상자의 관점을 이해하기 어려워 산부를 위한 개별적인 간호가 힘든 경우임을 알 수 있다.

Ⅲ.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초산부의 분만통증시 간호요구의 구조를 파악하기 위하여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선택하여 시도하였다.

1. 대상자 선정

본 연구의 대상자는 분만 후 1-2일 경과된 초산모로 면담이 가능하고 연구에 참여하기로 허락한 산모를 임의 선정하되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거하여 선정하였다. 첫째, 임신기간, 분만시, 산후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은 사람 둘째, 임신기간에 산전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 셋째, 분만시 통증의 감소를 위한 진통, 마취제를 사용하지 않은 사람 넷째, 분만시 가족과 함께 하지 않은 사람 다섯째, 정상 질식 분만한 사람으로 총 20명이었다. 대상자의 일반적 사항을 살펴보면 연령은 20세에서 34세까지 연령상 고위험군은 없었으며, 교육정도는 대졸이 10명, 고졸이 10명이었다.

2. 자료수집 방법

자료수집기간은 1998년 3월에서 1998년 5월까지 본 연구자에 의해 수집되었다. 자료수집은 비구조적이고 개방적인 질문을 통해 심층 면담하였다. 면담시 대상자의 표현을 빠짐없이 기록하기 위하여 대상자의 동의하에 면담내용을 녹음하였으며 대상자가 긴장하지 않고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도록 녹음기를 가능한 대상자의 시선에 띄지 않게 하였다. 면담장소는 대상자의 경험을 충분히 이끌 수 있는 편안한 환경을 제공해야 하지만 면담의 시기를 분만 후 1-2일을 선택하였기 때문에 산모가 입원한 병실에서 이루어졌다.

면담시간은 대상자의 경험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도록 시간을 제한하지 않았으며 평균 면담시간은 30분 정도였으며, 면담횟수는 1회로 하였고 간호요구와 관련된 새로운 범주가 나타나지 않을 때까지 계속 수집하였다.

대상자에게 연구목적에 맞는 의미를 끌어내기 위한 주요질문은 분만통증시 어떻게 하였습니까? 분만통증시 무엇이 가장 필요로 하였습니까? 분만통증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입니까? 분만통증시 가장 도움이 된 것은 무엇입니까? 분만통증시 가장 좋은 간호는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였다.

3. 자료분석

자료분석은 Giorgi(1970)가 제시한 방법을 근거로 하여 분석하였으며 절차는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면담시 녹음한 내용을 반복하여 들으면서 대상자의 말 그대로 기술하였다.
- 2) 기술된 내용에서 본 연구와 관련하여 의미 있는 절과 문장을 추출하였다. 20명의 대상자로부터 추출한 의미 있는 진술은 세차레를 통하여 추출을 시도하였다.
- 3) 추출된 의미 있는 진술 즉 원자료를 반복하여 읽으면서 각 진술에서 공통의 속성을 찾아 비슷한 주제로 유목화시켰으며, 주제별로 비슷한 내용끼리 모아 범주를 도출하여 각 대상자에게 나온 현상의 의미를 구체화시켰다.
- 4) 범주화된 자료에 대한 내용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국문학과 교수 1인에게 추출된 기술적 표현이 적절한지, 공통요소가 비슷한 속성끼리 모아졌는지, 자료의 내용에 맞는 주제가 선정되었는지 검증하였다. 또한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초산모 1인에게 자신이 경험한 내용과 일치하는지, 경험하지 않은 내용이라도 공감하는지를 검증 받았다.

IV. 연구결과

20명의 초산모들이 기술한 자료에서 나타난 의미 있는 진술은 134개였으며 이는 12개의 주제와 4개의 범주로 유목화되었다(표 1).

〈표 1〉 간호요구의 구조에 대한 범주와 주제

범주	주제
안정감	임석, 대화, 접촉
자아존중감	칭찬, 격려, 인격적 대우 의료인의 좋은 성품
알고 싶음	교육, 정보
편안감	자가조절 통증완화, 인위적 통증완화, 의료인의 능숙함

이상의 주제를 통합하여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분만 통증시 산부들은 누군가와 함께하기를 원하고, 신체적인 접촉을 바라며, 서로 대화하여 두려움이 없어지기를 바랐다. 그들은 의료인이 격려하기를, 인격적인 대우를하기를, 자신의 인내력에 칭찬을 아끼지 않기를 바랐으며, 친절하고 수용적인 태도로 대해주기를 원하였다. 또한 그들은 분만통증의 진행도와 이를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기를 기대하였다. 산부들은 분만통증시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아프지 않기를 기대하였고, 의료처치시 아프지 않는 능숙한 기술을 요구하였다.

본 연구의 초산부 간호요구의 구조는 4가지 범주로 구분되었다.

첫째, 「안정감」의 범주는 산부들이 분만통증시 심리적, 환경적, 신체적으로 안정감이 유지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었다. 여기에 속하는 주제는 「임석」 「대화」 「접촉」으로 산부들은 분만통증시 누군가와 함께 있으면서 서로 이야기하기를 바라고, 손이나 이마 등 신체적인 접촉을 원하였다. 각 주제별로 의미 있는 진술을 살펴보면 「임석」의 주제는 '마음 편하게 대할 수 있는 가족이 같이 있기를 바란다' '남편과 같이 있고 싶다'의 표현이, 「대화」의 주제는 '이야기할 상대가 있으면 좋겠다' '아프다고 말로 표현하는 것이 아픔이 덜한 것 같다' 등의 표현이, 「접촉」의 주제는 '이마에 손을 얹어 주는 것이 마음에 안정이 된다' '아픈 부위를 만져주는 것이 좋다' 등의 표현으로 나타났다.

둘째 범주는 「자아존중감」으로 산부들은 의료인이

자신의 모습에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고 하나의 인격체로서 대해주며, 친절하고 수용적인 태도로 성심성의껏 해줌에 자신의 존중감을 얻었다. 여기에 속하는 주제는 「칭찬」 「격려」 「인격적 대우」 「의료인의 좋은 성품」으로 나타났다. 각 주제별로 의미 있는 진술을 살펴보면 「칭찬」의 주제는 '간호사가 나에게 잘한다고 말할 때가 힘이 난다' '내가 스스로 호흡법을 하는 것에 대해 간호사가 칭찬할 때 더 잘하고 싶어진다' 등의 표현을 하였으며, 「격려」의 주제에 관한 의미 있는 진술을 보면 '간호사가 힘내라고 말할 때가 아픔이 덜하다' '변회시 가족이 용기를 주고 위로할 때가 아픔에 도움이 된다' 등이었으며, 「인격적 대우」의 주제는 '노출된 부위를 가려주면 좋겠다' '의사결정시 나의 의견을 반영하면 좋겠다' 등의 표현으로 나타났다. 「의료인의 좋은 성품」의 주제는 '의료인의 역할을 다하는 모습이 좋다' '힘든 일을 하면서도 친절하고 성심성의껏 대하는 태도가 마음에 든다' '하지 마라는 제재보다 수용적인 태도가 아픔을 덜게 해준다' 등으로 나타났다.

셋째 범주는 「알고 싶음」으로 산부들은 분만진행에 대한 설명을 듣기 원하며 분만통증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교육받기를 기대하였다. 여기에 속하는 주제는 「교육」 「정보」로 나타났다. 각 주제별로 의미 있는 진술을 보면 「교육」의 주제는 '간호사가 가르쳐 주는 호흡법을 따라하니 아픔이 덜하다' '분만을 위한 산전교육이 필요하다' 등으로 나타났으며, 「정보」의 주제는 '분만진행과정을 살핀 후 진행과정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분만까지의 남은 시간에 대해 이야기 해주기를 바란다' '무엇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 미리 설명해주는 것이 참는데 도움이 된다' 등으로 표현되었다.

넷째 범주는 「편안감」으로 산부들은 스스로이든 인위적이든 통증이 완화되기를 요구하고 처치시 아프지 않기를 기대하였다. 여기에 속하는 주제는 「자가조절 통증완화」 「인위적 통증완화」 「의료인의 능숙함」으로 나타났다. 각 주제별로 의미 있는 진술을 보면 「자가조절 통증완화」의 주제는 '아 이제 안 아프다 이 고비만 넘기면 된다는 자기 최면 요법이 아픔을 덜하게 한다' '침대머리에 자신의 머리를 부딪혀 통증을 다른 곳으로 유도한다' '복부나 등을 문지르면 아픔이 덜하다' 등의 표현이, 「인위적 통증완화」의 주제는 '진통제를 원한다' '무통분만을 원한다' '수술해 달라고 소리친다' 등으로 진술하였고, 「의료인의 능숙함」의 주제는 '의료처치시 서투른 솜씨로 아프게 하는 것은 싫다' '내진으로 자극하는

것은 싫다' 등의 표현이 나타났다.

V. 논 의

20명의 초산모들이 진술한 분만통증시 간호요구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분만통증시 산부들은 누군가와 함께하기를 원하고, 신체적인 접촉을 바라며, 서로 대화하여 두려움이 없어지기를 바랐다. 그들은 의료인이 격려하기를, 인격적인 대우하기를, 자신의 인내력에 칭찬을 아끼지 않기를 바랐으며, 친절하고 수용적인 태도로 대해주기를 원하였다. 또한 그들은 분만통증의 진행 정도와 이를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기를 기대하였다. 산부들은 분만통증시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아프지 않기를 기대하였고, 의료처치시 아프지 않는 능숙한 기술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양상에서 나타난 범주는 「안정감」 「자아존중감」 「알고 싶음」 「편안감」이었다.

즉 산부들은 분만통증시 심리적으로 안정되기를 바라고 신체적으로 편안함을 원하며, 분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알고 싶어하며, 의료인의 친절과 격려, 인격적인 대우를 통해 자신이 존중받기를 기대하며, 통증으로부터 벗어나 신체적으로 편안함을 가지기를 원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기존의 연구에서 발견하지 못한 분만통증시 산부들에게 개별적이고 통합적인 간호를 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고 생각된다.

각 범주에 대한 논의를 하면 「안정감」과 「자아존중감」의 범주는 다음과 같이 여러 연구자에 의해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다. Kintz(1987)는 분만동안 산부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간호행위로 칭찬 해 줄 때, 존경을 해 줄 때, 친절하게 대해 줄 때, 간호를 해 줄 때, 수용해 줄 때로 순위를 매겼다. Bryanton, Fraster-Davey와 Sullivan(1993)은 개별적으로 돌보아준다는 느낌을 받았을 때, 칭찬을 해 줄 때, 자신감과 용기를 북돋아줄 때, 존중해 줄 때 도움이 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Anderson(1976)도 분만동안의 간호를 '지지'라고 언급하면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지지는 산부의 프라이버시, 위생, 편안감을 제공하며 산부의 통합성을 증가시키는 것이며, 산부가 안전감을 느끼도록 해야 하며, 산부를 안심시키고 격려를 해주며, 산부를 진통과정에 실제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산부의 신체적 기능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행동이라 하였다. Berg 등(1996)는 분만동안 조산사와의 만남에 대한 여성의 경험을 현상학적

연구로 하여 나타난 주제는 '개인으로서 대하는 것' '믿을 수 있는 관계를 갖는 것' '분만동안 지지와 안내를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Simkin(1991)의 연구에서는 산부가 경시 당하거나 위협과 조절을 관리하기 위한 그녀의 노력이 좌절될 때 산부는 부정적인 충격을 받게 되어 이러한 감정은 오래도록 지속되며, 산부가 돌보아지고, 친절과 존중으로 다루어지고 참여자처럼 느낄 때 긍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고 이 또한 오래도록 지속됨을 보고하였다.

따라서 「안정감」과 「존중감」의 범주는 산부들이 힘든 분만통증을 겪을 때 심리적, 환경적, 신체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것으로 분만동안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간호행위 중 하나임을 인식할 수 있다. 이에 분만동안 산부들에게 행하는 의료인 특히 분만을 경험하는 여성과 가장 접촉을 많이 하는 간호사의 행위나 태도가 산부들의 안정감과 존중감에 큰 영향을 줌을 알아야 할 것이다.

「알고 싶음」의 범주는 산부들은 분만통증시 분만진행 과정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며, 통증완화를 위한 교육을 받기 바란다는 것이었다. Field(1987)은 산모들의 만족한 분만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중의 하나로 산부들이 분만진행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을 때라고 밝히고 있었으며, Mackey와 Lock(1989)의 연구 즉 분만동안의 간호에 대한 산부의 기대에 관한 질적 연구에서 7가지 범주 중 정보라는 범주가 포함되어 있었고, Cartwright(1987)는 1920명의 산모들에게 분만동안 원하는 간호의 특징을 물어본 결과 설명과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가 포함됨을 보고하였다. 또한 분만동안 조산사와 산부와의 만남에 대한 여성의 경험을 현상학적으로 연구한 결과에서 가장 필수적인 구조는 '입석'이며, 여기에 속하는 주제 중 '좋은 의사소통이 되기를 바란다'가 있었으며(Berg 등, 1996), 많은 연구에서(Cartwright, 1979; Kirke, 1980; MacIntosh, 1988; MacIntyre, 1982)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분만동안 산부들이 가장 큰 불평을 하는 요인 중의 하나임을 보고하였다.

따라서 「알고 싶음」의 범주는 산부들이 요구하는 사항 중 빈번한 것으로 이로 인해 분만통증의 원인을 알게 되고 분만진행 과정을 어느 정도 파악하게 됨으로써 통증에 대한 두려움이나 불안감이 감소되어 통증을 수용하고 안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편안감」의 범주는 산부들이 가장 절실히 느끼는 아픔과 고통스러움을 조금이나마 완화되기를 기대하며,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의료인에게 의지하려 하였다. Halldorsdottir와 Karlsdottir(1996)는 산부가 분만

동안 가진 자신과 간호제공자간의 만남의 기본적인 구조를 찾기 위한 연구에서 비돌봄으로 지각된 간호제공자의 특징 중 전문적인 능력이 부족할 때, 간호할 때 예민하지 못하고 거칠 때를 지적하였다. 그리고 Shields (1978)는 80명의 산부에게 분만동안의 주관적인 요구를 파악한 결과 가장 중요한 행위는 사정할 수 있는 간호사의 능력과 산부의 요구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제시하여 불안한 상황에서 믿을 수 있는 것은 의료인의 전문지식과 능력임을 보고하였다. 44명의 산모와의 면담으로 긍정적인 분만행위와 간호사의 특성이나 행동을 확인해 본 결과 친절하면서도 풍부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 그 중에 포함되어 있었다(Field, 1987).

따라서 산부들은 분만통증으로 힘들지만 의료인의 능숙한 기술과 행위, 친절한 태도로 안심을 하게 되고 믿음을 가지므로써 참고 인내하게 된다.

김현경(1994)은 질분만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에서 크게 분만전의 경험과 분만후의 경험으로 구분하였고, 분만전의 경험의 대부분이 분만통증에 대한 고통으로 표현되어 분만통증의 심각성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산부들이 가지는 가장 큰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통증이 감소되느냐에 있으며 이런 편안함에 대한 요구는 당연하다 볼 수 있다.

Lesser 와 Keane(1956)은 분만동안 간호제공자가 처리해 주기를 원하는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면담한 결과 통증이 완화되기를 요구한다고 보고하였고, 분만동안 산부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간호지시행위 중 분만통증시 호흡법, 이완요법, 환경을 조작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다(Butani 와 Hodnett, 1980; Roberts, 1983). Cartwright(1987)는 분만당시 간호의 특징 중 여성의 기대 내에서 통증과 편안감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도움이 됨을 보고하였다.

그러나 산부들은 분만통증을 극복함으로써 성취감, 정체감, 보람, 자신감등을 얻게 되므로 분만통증의 인위적인 조절이 아닌 산부 스스로 통증을 조절할 수 있는 참여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 본다.

VI. 결론과 제언

본 연구는 자연 분만한 초산모의 분만통증시 간호요구의 구조를 현상학적 접근으로 그 의미와 구조를 확인하여 분만통증관리에 도움을 주고자 시도되었다.

20명의 초산모를 대상으로 살아있는 경험으로부터 12개의 주제와 4개의 범주로 추출되었으며 그 구조를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분만통증시 산부들은 누군가와 함께 하기를 원하고, 신체적인 접촉을 바라며, 서로 대화하여 두려움이 없어 지기를 바랐다. 그들은 의료인이 격려하기를, 인격적인 대우하기를, 자신의 인내력에 칭찬을 아끼지 않기를 바랐으며, 친절하고 수용적인 태도로 대해주기를 원하였다. 또한 그들은 분만통증의 진행도와 이를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기를 기대하였다. 산부들은 분만통증시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아프지 않기를 기대하였고, 의료처치시 아프지 않는 능숙한 기술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간호요구의 구조에 내포된 범주는 『안정감』 『자아존중감』 『알고 싶음』 『편안감』 4가지로 표현되었다. 산부들은 분만통증시 심리적으로 안정되기를 바라고 신체적으로 편안함을 원하며, 분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알고 싶어하며, 의료인의 친절과 격려, 인격적인 대우를 통해 자신이 존중받기를 기대하며, 통증으로부터 벗어나 신체적으로 편안감을 가지기를 원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산부들이 원하는 간호요구가 다양함을 알 수 있었으며, 분만통증의 관리를 위해서는 간호제공자가 제공하는 일방적인 중재보다는 산부의 간호요구에 맞는 개별적이고 통합적인 간호를 해야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고 보여진다.

본 연구의 결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산부의 간호요구를 사정할 수 있는 도구 개발이 필요하다. 둘째는 산부들이 원하는 간호요구의 제공에 대한 산부들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와 이러한 산부의 만족이 분만의 긍정적인 경험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 김명자 (1984). 산부의 분만대기중 간호요구 조사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현경 (1994). 초산모의 출산경험에 대한 연구. 전북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석사학위논문.
- 김혜숙, 최연순, 장순복, 전은미, 정재원 (1993). 산부의 가족분만참여 요구. 모자간호학회지, 3(1), 38-48.
- 안혜숙 (1976). 산부의 간호요구와 간호원의 간호활동과의 비교연구. 대한간호학회지, 6(1), 51-59.

- 장순복, 최연순, 김혜숙, 조영숙, 이해우 (1992). 산부 가족의 분만참여 요구. 대한간호, 31(3), 62-75.
- 한경려 (1995). 조기 진통 산부의 간호요구에 대한 산 부와 간호사의 지각 차이에 대한 연구. 여성건강간 호학회지, 1(1), 76-93.
- Anderson, C. (1976). Operational definition of support. JOGNN, 5, 17-18.
- Berg, M., Lundgren, I., Hermansson, E., & Wahlberg, V. (1996). Women's experience of the encounter with the midwife during childbirth. Midwifery, 12, 11-15.
- Brown, S., Lumley, J. (1994). Satisfaction with care in labor and birth: A Survey of 790 Australian women. Birth, 21(1), 4-13.
- Bryant, Overland (1964). Obstetric management and nursing(7th ed). Philadelphia: F. A. Davis Co.
- Bryanton, J., Fraser-Davey, H., & Sullivan, P. (1993). Women's perceptions of nursing support during labor. JOGNN, 23(8), 638-644.
- Butani, P., Hodnett, E. (1980). Mother's perceptions of their labor experiences. Maternal-Child Nursing Journal, 9, 73-82.
- Cartwright, A. (1979). The Dignity of labour?. Cambridge: Tavistock Publications.
- Cartwright, A. (1987). Who are maternity services kind to? What is kindness?. Midwife Health Visitor and Community Nurse, 23, 21-24.
- Chertok, L. (1969). Motherhood and personality: Psychosomatic aspects of childbirth. London: J B Lippincott Co.
- Crowe, K., von Baeyer, C. (1989). Predictors of a positive childbirth experience. Birth, 16(2), 59-63.
- Davenport-Slack, B., Boylan, C. H. (1974). Psychological correlates of childbirth pain. Psychosomatic Medicine, 36(3), 215-223.
- Field, P. A. (1974). Relief of pain in labor. Canadian Nurse, 70(12), 17-23.
- Field, P. A. (1987). Maternity nurses: How parents are us. Int J Nurs Stud, 24, 191-199.
- Giorgi, A. (1970). Psychology as a human science. New York: Harper & Row.
- Halldorsdottir, S., Karlsdottir, S. I. (1996). Empowerment or discouragement: Women's experience of caring and uncaring encounters during childbirth. Health Care for Women International, 17, 361-379.
- Kintz, D. L. (1987). Nursing support in labour. JOGNN, March/April, 126-130.
- Kirke, P. N. (1980). Mother's views of obstetric care. British Journal of Obstetric and Gynecology, 87, 1029-1033.
- Klein, R. P., Gist, N. F., Nicholson, J., & Standley, K. (1983). A Study of father and nurse support during labour. Birth Fam J, 8, 161-164.
- Lesser, M. S., Keane, V. R. (1956). Nurse-patient relationships in hospital maternity service. St. Louis: C. V. Mosby.
- Lowe, N. K. (1987). Individual variation in childbirth pain. J Psychosom Ob Gy, 7, 183-192.
- Mackey, M. C., Lock, S. E. (1989). Women's expectations of the labor and delivery nurse. JOGNN, 18, 505-512.
- MacIntosh, J. (1988). Women's views of communication during labour and delivery. Midwifery, 4, 166-170.
- MacIntyre, S. (1982). Communications between pregnant women and their medical and midwifery attendant. Midwives Chronicle, 95, 387-394.
- Melzack, R., Kinch, R., Dobkin, P., Lebrun, M. and Taenzer, P. (1984). Severity of labour pain: Influence of physical as well as psychologic variables. Can Med Assoc J, 130(1), 579-584.
- Melzack, R., Taener, P., Feldman, P., & Kinch C. M. (1981). Labor is still painful after prepared childbirth. CMAJ, 125, 357-363.
- Morgan, B. M., Bulpitt, C. J., Clifton, P., &

Lewis, P. J. (1984). The Consumer's attitude to obstetric care. Br J of Ob Gy, 91, 624-628.

Nettelbladt, A. P., Fagerstrom, C. F., & Uddenberg, N. (1976). The Significance of reported childbirth pain. J Psychosomatic Research, 20, 215-221.

Norr, K. L., Block, C. R., Charles, A., Meyering, S., & Meyers, E. (1977). Explaining pain and enjoyment in childbirth. J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18, 260-275.

Roberts, J. C. (1983). Factors influencing distress from pain during labor. MCN, 8(1), 62-66.

Rosengren, W. R. (1962). The Sick role during pregnancy: A Note on research in progress. J Health Hum Behav, 3, 213-218.

Shields, D. (1978). Nursing care in labor and patient satisfaction: A descriptive study. Journal of Advanced Nursing, 3, 535-550.

Simkin, P. (1991). Just another day in a women's life? Women's long-term perceptions of their first birth experience, Part I. Birth, 18, 203-210.

Tarnower, W. (1965). Psychological needs of the hospitalized patients. Nursing Outlook, 138.

-Abstract-

Key concept: Primipara, Nursing needs

A Study on Nursing Needs during Labor Pain

Yeo, Jung He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structure of nursing needs during labor pain as perceived by women who have given birth.

The phenomenological perspective of qualitative

research theory guided the approach to the study.

The sample consisted of 20 women who had undergone normal labor and had delivered a healthy baby at term. Collection of data was by means of in-depth interviews conducted 1-2 days after delivery in the admission room from March to May 1998. On average, the interviews lasted for about 30 minutes. Interviews were taken with the consent of the subjects.

Data were analyzed by means of Giorgi's method and categorized according to the similarities of their contents.

The investigator read the data repeatedly to identify themes and categories.

Four categories were : 1) a sense of security 2) self esteem 3) willingness to learn 4) a sense of comfort

Under these categories there were twelve themes.

- I. A sense of security : ㉠ presence ㉡ conversation ㉢ touching
- II. Self esteem : ㉠ praise ㉡ encouragement ㉢ treating the women with respect ㉣ caregiver with good character
- III. Willingness to learn : ㉠ teaching ㉡ information
- IV. A sense of comfort : ㉠ self controlled pain relief ㉡ artificially controlled pain relief ㉢ skillfulness of caregiver

The findings should sensitize nurses to the various needs of women in labor who are under their care.

Further research should focus on developing instruments to assess the nursing needs of parturients. Researchers also need to identify ways to assess women's satisfaction with nursing needs.

* Dept. of Nursing, Medical School Pusan National University